통일아리랑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13일 수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13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대변인 성명

주체91(2002년) 2월 11일 평 양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월 7일 남조선사법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간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등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 놓고 끝내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합법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던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에게 이른바 ≪특수목적의 탈출 및 회합≫이니 ≪고무찬양≫이니 ≪리적단체가입≫이니 하는 따위의 ≪죄≫목을 걸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을 들씌웠다.

더욱이 엄중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남조선사법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 놓고 당치않게 북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라고 웨치면서 범민련을 ≪리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반민족적인 대결소동을 피운 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민족통일대축전을 계기로 평양에서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범민련과 함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종교단체들등 북과 남의 여러 단체대표자들사이의 폭넓은 상봉과 대화가 진행되였으며 여기에서는 6.15공동선언리행에서 나서는 많은 유익한 문제들이 협의 결정되였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하였다.

그런데 여러 단체들가운데서 유독 범민련에 대해서만 범죄시하면서 악형을 들씌운데는 범민련의 의로운 활동을 눈에 낀 가시처럼 여기면서 이번 기회에 범민련을 말살해 버리려는 반통일세력의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이번 남조선사법당국의 반북적대적인 언동과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북남관계를 대결에로 몰아 가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책동으로, 남조선에서 범민련을 끝끝내 말살해 버리려는 음흉한 책동의 일환으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공동선언을 지지한다면 과거여하를 불문하고 남조선의 그 어느 단체, 인사도 차별함이 없이 함께 손잡는 원칙에서 련대련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이것은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랭전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체 ≪리적≫을 운운하면서 련북통일의 길에 나선 단체들과 인사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자들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은 안중에도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남조선사법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에게 부당하게 가한 형벌을 당장 취소하고 무조건 전원 석방하며 그들의 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내외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범민련 남측본부를 계속 탄압하는 길로 나간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전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사법당국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 (전 13권) 출판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 수십년동안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집대성한 총서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 (전 13권)을 편찬발행하였다.

총서는 20세기 문예부흥을 안아 오신 탁월한 사상리론가,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서술하였다.

총서는 총론, 문학, 영화예술, 연극예술, 음악예술, 미술, 무용예술, 교예, 사진예술, 예술교육, 문화유적유물보존, 대외예술편으로 구성되여 있다.

성명

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대변인 성명
1 단신－총서 ≪20세기 문예부흥과 **김정일**≫(전13권)출판

노작

2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3)

세기와 더불어

4 1장 7절 유산(2)

칭송

6 쑥섬혁명사적지에 깃든 사연
6 붉은 백두 / **김정일**동지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가들의 빛나는 귀감

8

한국민족민주전선

7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말라!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11일
8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
8 호전광의 전쟁행각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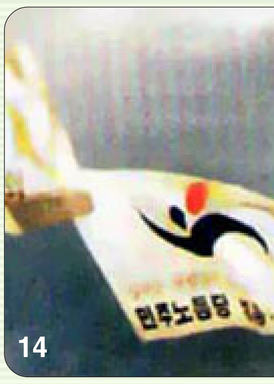
15 PDF총서 ≪21세기 태양≫ 7. 영생

조선중앙통신

9 주체 91년 2월 11일
10 선군혁명 천만리 － 다박솔언덕에서(2) 로동신문 정론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1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



14

아리랑뉴스

12 남북 해외동포 함께 전쟁위협 단호히 물리치자
12 북 이산가족 ≪영상전화 만남≫추진
12 등록금 투쟁 이색시위, 대학본부 ≪가압류≫
13 미전문가들, 부시 대북강경발언 위험한 결과 초래
13 ≪노리개≫감이 된 나라의 지도자들
13 과자보다 무서운 ≪마늘≫맛을 보여주마
14 진보정당 운동 주체적으로 나선다
14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강화 재확인

통일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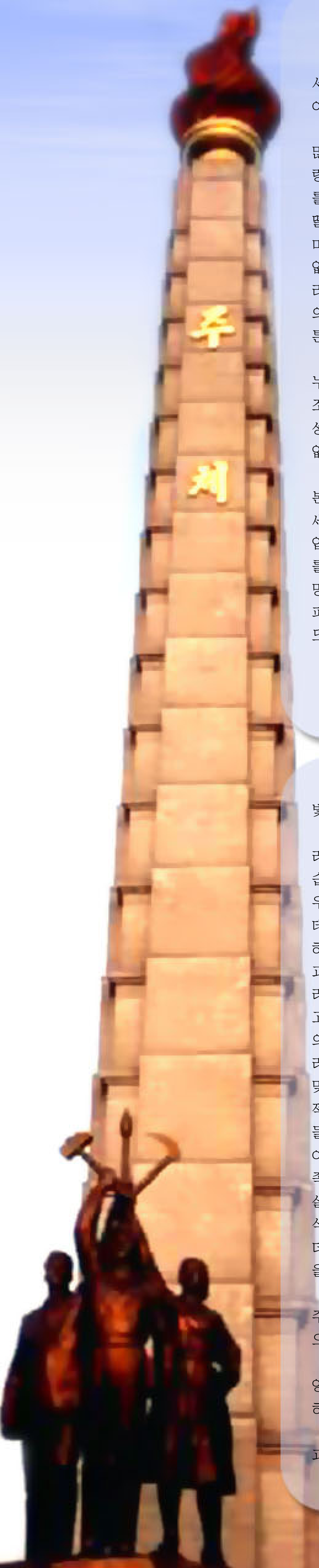
15 조・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5)

조국통일3대헌장

16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3)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3)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 1989년 12월 28일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데서 각계각층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과의 대결에서 승패는 누가 군중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당은 대중과 떨어져서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민족의 운명도 개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누구나 다 사회정치조직에 망라되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끊임없이 단련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데서 기본장애는 일군들 속에 남아있는 관료주의, 세도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입니다. 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고 세도를 쓰면 당과 대중을 이탈시켜 당자체의 생명을 좀먹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게 되며 결국 혁명위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관료주의와 세도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는 것이 당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그것을 철저히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 군중관을 확고히 세워 그들이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보람으로 여기고 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에게서 배우고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언제나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군중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 데서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고 민족적 전통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성은 민족이 계승하는 전통에 체현되며 그에 기초하여 높이 발양됩니다. 따라서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민족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됩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구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만년초석입니다. 항일의 혁명전통은 수령님의 영도 밑에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숭고한 혁명정신이 발휘된 더없이 귀중한 전통이며 다방면적인 업적과 경험이 이룩된 가장 심오하고 풍부한 전통입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의 빛나는 귀감으로 됩니다. 항일의 혁명전통과 같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자랑입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혁명이 전진하고 생활이 더 유족해질수록 언제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이룩된 풍부한 투쟁경험과 업적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전후 잿더미 위에서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킨 영웅적 투쟁기풍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우리 인민의 귀감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하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싸워나가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모범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내려오면서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이룩하였습니다. 민족적 전통을 옳게 계승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민족문화유산과 미풍양속을 비롯한 민족적 전통을 잘 살려나가야 합니다. 민족적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여 낡은 것을 그대로 되살리는 복고주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민족적 전통을 살려나가는 데서 낡은 것, 사회주의적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진보적인 것, 인민적인 것을 현대적 미감과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민족문화 유산과 전통을 오늘의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민족문화를 더 잘 건설하며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을 잘 살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발양시키는 사업도 형식주의적으로 하지 알고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족제일주의교양사업은 다른 교양사업과 떨어진 별개의 교양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면 그것이 곧 민족제일주의교양으로 됩니다. 당조직들과 선전일군들은 민족제일주의교양을 한두 번의 강연이나 학습을 조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상교양사업의 모든 내용과 형식, 계기를 통하여 꾸준히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구호만 부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생동한 사실을 가지고 원리적으로 깨우쳐 주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민족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의 기본분야에서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별적 부문에서는 아직 뒤떨어진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다 제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선전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전사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명실공히 제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구태여 뒤떨어진 것까지 제일이라고 과장하여 선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지난날의 낙후한 처지에 비해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가 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선진수준에 이르기 위한 목표와 그 실현 방도를 알려주고 신심을 안겨주어 적극 투쟁하게 함으로써 하루빨리 제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선전일군들은 현실을 과장하지도 외연하지도 말고 민족제일주의교양을 진실하고 실속있게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을 터욱 빛내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빨리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의 영예를 고수하고 더욱 높이 떨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뒤떨어진 부문을 빨리 추켜세워 세계 선진수준에 올려놓지 않는다면 민족의 영예를 빛내어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일부 과학기술과 경제부문의 우세를 가지고 사회주의를 헐뜯고 있는 조건에서 과학기술과 경제건설 분야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좋고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아도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수준에서 뒤떨어지게 되면 자본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확고히 보장할 수 없으며 민족의 영예를 높이 떨칠 수 없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조국,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 토대와 인텔리대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제적 잠재력과 과학기술역량을 옳게 동원이용하여 나라의 경제적 위력과 과학기술수준을 빠른 시일 안에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높이 내세우고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실현해 나감으로써 맡겨진 혁명초소마다에서 민족의 영예를 더욱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하나의 건물을 지어도 남의 것보다 더 좋게 생산하며 더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생산과 건설을 망탕 하여 그 질이 낮다는 말을 듣는 것을 민족의 수치로 여기고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분발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모든 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 산천과 시설물, 일터와 기대를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처럼 귀중히 여기고 알뜰히 다루며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민족경제의 주체성, 자립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일군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입병≪은 우리 경제의 주체성,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장애로 됩니다. 모든 일군들은 ≪수입병≪을 없애는 것이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제품이 아직 남의 것보다 좀 못하다 해도 자기의 것을 사랑하며 남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달라붙어 하루빨리 세계 선진수준에 올려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력갱생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이라도 선진적인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민족의 위력을 떨치는 데서 훌륭한 인재를 더 많이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재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과학자, 발명가를 비롯하여 각 부문에서 뛰어난 인재를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 속에서 20대, 30대의 이름있는 과학자, 기술자를 비롯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1990년대에 과학과 기술, 경제와 문화,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앞선 부문은 더 공고발전시키고 뒤떨어진 부문은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목표를 바로 세우고 당조직 정치사업과 행정경제사업을 짜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매개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자랑 떨칠 수 있는 시범단위도 많이 꾸리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며 조선민족의 영예를 떨치는 공로자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 주어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민족제일주의정신을 발양하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벌여 나감으로써 민족의 영예를 떨치기 위한 투쟁이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 북반부에 우리 식의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사회주의를 일떠세워 민족제일의 영예를 떨치고 있지만 나라의 분열로 인한 민족의 비극은 의연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남조선괴뢰들의 매국배족정책의 산물입니다. 전민족의 마음은 통일에로 쏠리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수고 반만년을 이어 내려온 민족적 단일성과 자주권을 반드시 되찾고야말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과거 생활이 어떠하건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손을 잡고 민족통일의 대업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적 판도에서 조선민족의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한다는 민족적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적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영예를 더욱 빛내임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 1990년대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조국,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

정치사전

혁명전통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전통이라는것은 혁명투쟁의 력사적시원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에 의하여 이룩되고 발전풍부화된다. 혁명전통에는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 사상과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있으며 수령이 이룩한 고귀한 혁명업적과 경험이 집대성되여 있다. 매개 민족은 자기의 민족적애국전통이나 민족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전통이나 유산이 다 혁명전통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오직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끄는 과정에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전통만이 혁명전통으로 된다. 혁명전통은 혁명투쟁의 력사적행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여 나간다. 혁명의 개척기에 혁명전통을 이룩한 수령은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해 나가는 과정에 새로운 업적을 쌓으며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는 투쟁행정에서 새로운 투쟁경험을 쌓아 나간다. 이 모든 혁명업적과 경험은 혁명전통의 발전풍부화로 된다.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토대로 하여 발전하며 혁명전통을 생명선으로 하여 그 명맥이 이어져 나간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은 곧 수령의 위업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를 이어 계속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구현하며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이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은 그 생명이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당과 혁명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 나갈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시고 새 사회 건설과정에서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우리 당은 혁명투쟁의 전 과정에서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힘 있게 벌려 나감으로써 당과 혁명의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 올수 있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었다.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적 발전과 종국적완성은 주체의 혁명전통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 있다.

1권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1. 우리 가정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3. 독립만세의 메아리
4. 타향에서 타향으로
5. ≪압록강의 노래≫
6. 나의 어머니
7. 유산

7. 유산 (2)

며칠후 나는 무송제1소학교에 편입하였다. 이 학교에서 나와 제일 친한 학생은 장울화라는 중국소년이였다. 그는 무송에서 두번째인가 세번째로 손꼽히는 부자집 아들이였다. 장울화네집에는 가병만 해도 수십명이나 있었다. 무송현 동강에 있는 인삼포는 거의나 장울화네것이였다. 장울화네는 해마다 가을이면 인삼을 캐여 말이나 노새에 싣고 다른 지방에 가져다 팔았다. 그 집에서 인삼을 팔러 갈 때에는 가병들이 10리씩이나 늘어서군 하였다. 장울화의 아버지는 이름있는 부자였지만 제국주의를 미워하고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량심적인 인간이였다. 장울화 역시 그랬다.

나는 후날 혁명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덕으로 어려운 고비를 여러번 모면하였다.

조선학생들 중에서는 고재봉, 고재룡, 고재림, 고재수 등이 나와 가깝게 지냈다.

아버지가 무송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던 당시는 중국반동군벌들이 친일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조선애국자들의 활동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세가 매우 불리하였다. 그런데다가 평양과 포평에서 받은 두차례의 심한 고문과 동상의 후과로 하여 아버지의 건강도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혁명투쟁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소남문거리의 우리 집에는 ≪무림의원≫이라는 새 간판이 나붙었다. 사실 아버지는 남을 치료할 형편이 못되었다. 오히려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인차 또 길을 떠났다. 그때는 다들 못떠난다고 말리었다. 장철호, 공영, 박진영을 비롯하여 무송에서 왔다갔다하는 독립운동자들은 누구나 다 만류하였다. 나나 형권삼촌도 말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지지하고 말없이 받쳐드리던 어머니도 이번만은 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만류하였다.

아버지는 결심을 굽히지 않고 기어이 무송을 떠났다.

내도산일대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상층이 행동통일을 보지못하고 몇개의 패로 갈라져 서로 세력다툼을 하기 때문에 부대가 와해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몹시 불안해하였다.

아버지의 좌우명≪지원≫

장철호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안도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그는 두사람분의 길량식으로 좁쌀 대여섯되박과 된장 한단지를 배낭속에 넣은 다음 도끼와 권총 한자루를 몸에 지니고 무송을 떠났다. 목적지까지는 수백리나 되는 무인지경이였다. 그 무인지경을 가느라고 퍼그나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밤에는 한지에다 우등불을 피우고 덮개도 없이 통나무무지에 기대여앉아 쪽잠을 청하군 하였는데 아버지의 기침이 심하여 그 사람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안도에 갔다와서도 그냥 심하게 기침을 하였다. 며칠후부터는 그런 몸으로 백산학교의 인가를 얻느라고 또 여기저기로 뛰어다니였다. 백산학교는 국내에서 사립학교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그에 보조를 맞추어 무송지방에 이주한 조선의 망명자들과 선각자들이 농민들과 함께 설립한 력사가 오랜 사립학교였다.

초기의 백산학교 규모는 아버지가 다닌 만경대의 순화서당만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의 농촌집 방 두개를 합친 것만하였다. 그런데 그처럼 작은 규모의 백산학교도 운영비의 부족으로 오래동안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무송에 이사하였을 때에는 백산학교를 복구하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였다. 일제의 부추김을 받고있던 군벌당국이 학교의 인가를 해주지 않아서 아버지는 여간 애를 태우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 가서나 교육운동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고 도처에 학교들을 설립하였다. 아버지는 개교식전야에 장철호와 함께 목공창에서 만든 책걸상들을 마차에 싣고 백산학교로 갔다. 비록 ≪무림의원≫간판을 달고 의원일은 중단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학교에 가있었다.

아버지는 백산학교 명예교장으로서 직접 교편을 잡지 않았으나 교육내용과 후원사업을 보아주면서 학교에 나가 연설도 하고 과외활동지도도 많이 하였다.

백산학교에서 사용한 ≪국어독본≫은 우리 아버지가 손수 쓴 것이다. 아버지는 백산학교를 세운 다음 류하현 삼원포에 갔다와서 박기백(박범조)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교과서를 만들었다. 아버지가 교재를 집필하면 뜻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삼원포에 가지고 가서 인쇄해다가 만주각지에 배포하였다. 거기에 교과서를 찍어내는 정의부관할하의 인쇄소가 하나 있었다. 석판으로 인쇄물들을 뽑아냈는데 책들이 훌륭하였다. 만주에 있는 조선인학교들에서는 여기서 찍어낸 교과서들을 가지고 공부하였다.

아버지는 무송에서 교육문제를 의논하는 회의만 해도 여러차례 열고 안도, 화전, 돈화, 장백 등지에 유능한 사람들을 파견하여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은 모든 곳에 학교와 야학을 세우도록 하였다. 장백현 18도구 득영촌의 육영학교도 그 무렵에 세운 학교였다. 후날의 조선혁명군 대원이며 ≪ㅌ·ㄷ≫성원인 리제우와 항일투사 강돈은 다 그 학교 출신들이였다.

백산학교 일이 잘되어가자 아버지는 다시금 만주각지로 다니면서 독립운동자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이 시기의 활동에서 기본은 독립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방향전환의 로선을 실현할 수 있는 모종의 유일당창건문제가 일정에 오를 때였던 것만큼 그 초석으로 되는 독립운동대렬의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초미의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었다. 그것을 위해 아버지는 생애의 말년을 고스란히 바치었다. 그 당시 동북 3성에 할거하고 있던 여러 갈래의 군소독립운동단체들은 3부로 통합되어 만주에는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3부가 존재하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런데 이 3부도 세력권확장을 위한 파쟁을 일삼아 민중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아버지는 통일단결이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력사적 대과제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1925년 8월에 무송에서 국내외의 조선국민회 대표들, 무장단체대표들과 함께 독립운동대렬의 통일단결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민족단체련합촉진회를 결성하였다. 그때 아버지의 구상은 이 촉진회를 움직여서 유일당창립을 앞당기려고 하였던 것 같다. 아버지는 분과 초를 다투어가면서 하루하루를 다른 때보다 몇곱절 더 서둘러 일하였다. 그때 아버지자신은 벌써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후 얼마 안되어 중환으로 몸져누웠다.

1926년 봄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병석에 매인 몸이 되었다. 아버지가 병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토방우에 낯선 신발들이 대여섯켤레 놓여있군 하였다. 다들 몸에 좋다는 약들을 지어가지고 와서 문병을 하고 아버지를 위로하였다. 아무리 돈에 궁한 사람도 인삼 한뿌리씩은 거의 가지고 왔다. 하지만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아버지의 병에는 약도 효험이 없었다. 봄은 지상만물에 기름진 생명의 즙을 주며 새 계절을 노래하고 있었건만 야속하게도 만사람이 그렇게도 바라고 기다리던 아버지의 건강만은 소생시키지 못하였다. 나도 학교에 다닐 마음의 경황이 없었다. 어느날 아침 나는 학교로 가다가 아버지가 걱정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너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하고 엄하게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다.

아버지는 ≪가거라. 사내가 그래서는 큰일을 못해.…≫라고 하며 나를 기어이 학교로 보내였다.

하루는 길림에서 오동진이 장철호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다. 오동진은 무송회의방침에 따라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느라고 여러모로 애를 썼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심하던 중 의논도 할겸 병문안도 할겸 겸사겸사해서 찾아왔노라고 하면서 분렬을 일삼는 사람들의 소행을 격분에 차서 타매하였다. 성미가 과격한 장철호는 그런 옹고집쟁이들하고는 차라리 결별을 하고 말아야 한다면서 분노를 다잡지 못하였다.

두사람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있던 아버지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갈라잡고 ≪아니요. 그래서는 안되오. 힘이 들더라도 통합은 꼭 실현해야 하오. 통합을 해가지고 무장으로 적과 맞서기전에는 독립을 성취할 수가 없소.≫하고 말씀하였다. 그들이 돌아간후 아버지는 리조시기부터 내려오는 당파싸움에 대해 말씀하면서 당쟁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분오렬되어 파쟁을 일삼고 있으니 야단이라고 개탄하였다. 파쟁을 근절하기전에는 나라의 독립도 이룩할 수 없고 문명개화도 이룩할 수 없다, 파쟁은 국력을 쇠진케 하는 근원이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매개자이다, 외세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너희들 대에는 반드시 파쟁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단결을 이룩해야 하고 민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병구완을 할 때면 아버지는 나를 옆에 앉혀놓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주로는 아버지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체험들이였는데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았다.

아버지의 이야기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3대각오에 대한 말씀이다.

→

김형직선생님께서 쓰시던 권총을 위대한 수령님께 넘겨주시는 강반석녀사

≪혁명가는 어디 가나 항상 3대각오를 가져야 한다. 아사, 타사, 동사, 다시 말하여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다.

벗과 우정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도 교훈적인 것이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사귄 벗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대문을 나서서는 벗들에게 의지하라고들 하는데 다 뜻이 있는 말이다. 생사고락을 같이 할 진정한 벗은 사실상 형제보다도 더 가깝다.≫ 그날 아버지는 벗과 우정에 대한 말씀을 장시간 하였다.

아버지는 동지를 얻는 일로부터 투쟁을 시작하였다, 돈이나 륙혈포를 얻는 것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버지는 어데 가서나 좋은 동지들부터 물색하였다. 좋은 동지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다, 금이나 보석을 캐내듯이 힘을 들여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키워내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평생 조선과 만주벌판을 발이 부르트게 돌아다닌 것이다, 너희 어머니도 그래서 한뉘 손님시중을 드느라고 배를 곯으며 고생하였다.

나라와 민중을 위한 진심만 있으면 좋은 동지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뜻이고 마음이다, 돈은 없어도 뜻만 통하면 서로 동지가 될 수 있다, 백만금을 가지고서도 얻지 못하는 우정을 단 한모금의 숭늉이나 한알의 감자를 가지고 얻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아버지는 재산가도 아니고 세력가도 아니지만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버지는 재산가운데서도 제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아버지는 동지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들도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보호해주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지가지의 풍상고초를 이겨내며 광복운동에 헌신할 수 있은 것은 동지들이 아버지에게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병중에 계시면서도 제일 그리워지는 것이 친구들이라고 하며 나에게 좋은 동지들을 많이 사귀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동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 수 있다.≫

그때 아버지가 해준 말씀은 지금도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있다.

어머니는 몇달동안 침식을 잊고 병마와의 어려운 싸움을 하는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해드리였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따를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눈물겨운 지성이였다. 그러나 그 초인간적인 지성도 아버지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1926년 6월 5일, 아버지는 고향으로부터 수천리 떨어진 이역의 자그마한 지붕밑에서 망국의 한을 풀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는 독립을 이룩하고 함께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나는 못갈것 같소. 나라가 독립되면 당신이 성주를 앞세우고 고향에 가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자니 시름이 안놓이오. 성주를 부탁하오. 내가 성주를 중학까지 공부시키자고 했는데 글러진 것 같소.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먹더라도 중학까지는 공부시켜주오. 그다음 그 아래 동생들은 성주가 할 탓이요.≫

그날 어머니에게 남긴 아버지의 유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늘 차고 다니던 권총 두자루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이렇게 부탁하였다.

≪내가 죽은 다음 이 총이 나지면 재미가 없으니 땅속에 묻었다가 성주가 커서 투쟁의 길에 나설 때 주도록 하오.≫

그리고는 우리 삼형제를 향하여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나는 소리를 내여 목놓아울었다. 아버지의 서거는 나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던 망국의 설음을 한꺼번에 폭발시키었다.

아버지는 한생을 나라를 위해 살을 저미고 뼈를 깎다가 돌아갔다. 거듭되는 악형과 동상으로 몸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도 굴함을 모르고 민중을 찾아가고 동지들을 찾아가던 아버지였다. 힘이 진하면 지팽이를 짚고 배가 고프면 생눈을 움켜삼키면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걸어가던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어느 당파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나라의 광복과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였다. 아버지에게는 물욕도 없었고 사리사욕도 없었다. 돈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사탕을 사먹이고싶어도 꾹 참고 한푼두푼 모아서 풍금을 사다가 학교에 기부하였다. 자기를 생각하기에 앞서 겨레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국을 먼저 생각하며 찬바람을 맞받아 일생을 쉬임없이 걸어간 아버지였다. 인간으로서도 청렴하게 살았고 혁명가로서도 결백하게 살았다.

아버지가 무송에서 돌아가신 방

나는 아버지가 가정살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한번도 듣지 못하였다. 내가 사상이나 정신면에서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것이 많지만 재물이나 금전상으로 상속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 고향집에 전시해놓은 농쟁기나 가정도구들도 모두 할아버지가 남긴 것이지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아니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이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의 전부였다. 그것은 모진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유산이였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유산이 없었다.

아버지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거행되었다. 장례날에는 소남문거리가 미여지게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남북만각지와 간도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평소에 아버지를 따르고 흠모하던 수많은 동지들과 친구들, 제자들, 어제날의 환자들이 꼬리를 물고 무송으로 밀려들었다. 무송현장도 금박향지묶음을 가지고 찾아와 아버지의 령전에 향을 피우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였다.

아버지의 묘소는 소남문거리에서 10리가량 떨어진 두도송화강기슭의 양지촌에 쓰게 되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 마을로 자주 다니였다. 그 동네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병도 봐주면서 한집안식구처럼 허물없이 지내였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평소에 그처럼 살틀하게 지내던 사람들속에 계시고싶었을 것이다.

그날은 소남문거리로부터 양지촌에 이르는 10리길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독립운동자들은 상여를 메고 가면서도 목놓아울었다. 무송지방의 조선녀성들은 아버지의 장례식날부터 보름동안 머리에서 흰댕기를 풀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잃었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스승을 잃고 지도자를 잃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준 혈육인 동시에 어린 나이때부터 나를 혁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준 스승이였고 지도자였다. 아버지의 희생은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으로 되었다. 내 가슴은 메꿀수 없는 상실로 하여 텅 비여버리였다.

어떤 때는 홀로 강가에 나가앉아 멀리 조국의 하늘을 그려보며 눈물을 짓기도 하였다. 생각하면 나에 대한 아버지의 정은 남다른 것이였다. 내가 좀 자라서부터는 늘 진지하게 나라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터놓고 말씀하군 하던 아버지였다. 무한히 엄하면서도 끝없이 웅심깊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였다. 이제는 그런 사랑, 그런 이끄심을 더는 받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게 되였다

그러나 나를 비탄의 눈물속에서 일으켜세워준 것은 아버지의 남다른 그 유산이였다. ≪지원≫, 3대각오, 동지획득, 두자루의 권총…

당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막막하고 암담한 슬픔속에서도 나는 그 유산에서 힘을 얻고 내가 갈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가 물려준 권총

일화

쑥섬혁명사적지에 깃든 사연

주체78(1989)년 3월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영도사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기 위해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쑥섬을 혁명사적지로, 민중의 유원지로 꾸릴데 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분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쑥섬을 혁명사적지와 유원지로 꾸릴데 대하여 여러 차례 교시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했던 김구, 홍명희, 김규식등과 같이 쑥섬에 나가시어 사업하신 장소를 혁명사적지로 꾸려놓으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남조선청년학생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한다.

그후 그분께서는 쑥섬혁명사적지에 세울 통일전선탑형성도안도 친히 보아주시고 쑥섬혁명사적지건설을 위한 강력한 건설역량도 친히 편성해주시고 거기에 수많은 현대적 건설수단들과 자재들도 보내주도록 조처하시였다 한다.

김정일장군님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와 관심 속에 쑥섬에서는 유서깊은 이곳을 혁명사적지, 민중의 유원지로 꾸리기 위한 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건설이 한창 추진되던 1989년 10월 초 어느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미 전에 쑥섬과 두루섬사이로 흐르던 강을 막아 만들어놓은 논과 양어장을 없애며 사이강에서 수십만입방의 토량을 파내고 석축을 하여 쑥섬을 원상대로 복구할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한다.

그리고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어 쑥섬이 날로 자기의 옛모습을 되찾아가던 어느날에는 유관부문간부들에게 위대한 주석님을 모시고 공사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받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주시였다.

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보니 감회가 깊다고 하시면서 역사적인 사적들을 하나하나 고증해주시였다. 그분께서는 뜻깊은 협의회장소에 서늘한 그늘을 주었던 두갈래의 버드나무며 다락자리도 찾아주시고 회의가 끝난후 여러 사람이 올라가 장기를 두었던 원두막도 회상하시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통일전선탑에 새겨넣을 쑥섬협의회 참가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시고 감회깊이 회억하시였으며 쑥섬에 나룻배부두를 원상복구하고 나룻배도 당시 형태대로 만들어 가져다 놓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한다.

진정 위대한 주석님의 이날의 현지지도는 사적지건설에서 제기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방도들이 명시된 강령적인 현지지도였다.

위대한 주석님의 교시대로 쑥섬혁명사적지를 원상대로 더 잘 건설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건설자들은 쑥섬혁명사적지건설을 기한전에 앞당겨 완공하기 위해 불철주야의 노력투쟁을 벌였다.

건설자들의 노력적 위훈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주석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원두막과 나룻배 등 사적물들을 원상대로 완성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분께서는 특히 통일전선탑건립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수백톤에 달하는 돌을 운반할 수송수단도 친히 보내주시었고 탑을 세울 위치와 높이, 탑의 형식과 내용도 정해주시었다.

1990년 4월중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건설자들과 창작가들이 만들어올린 통일전선탑건립에 관한 안을 친히 보아주시고 비준해주시었다 한다.

그리고 1990년 4월 어느날 현장에 나오시어 쑥섬혁명사적지의 식수정형도 요해하시고 전민중적인 식수사업도 조직해주셨으며 8월 초에는 사적지관리운영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 쑥섬혁명사적지는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혁명사적지로, 민중의 유원지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었다.

1990년 8월10일 조국광복 45주년을 계기로 이곳에서는 남과 북, 해외동포들의 참가하에 쑥섬혁명사적지준공과 통일전선탑제막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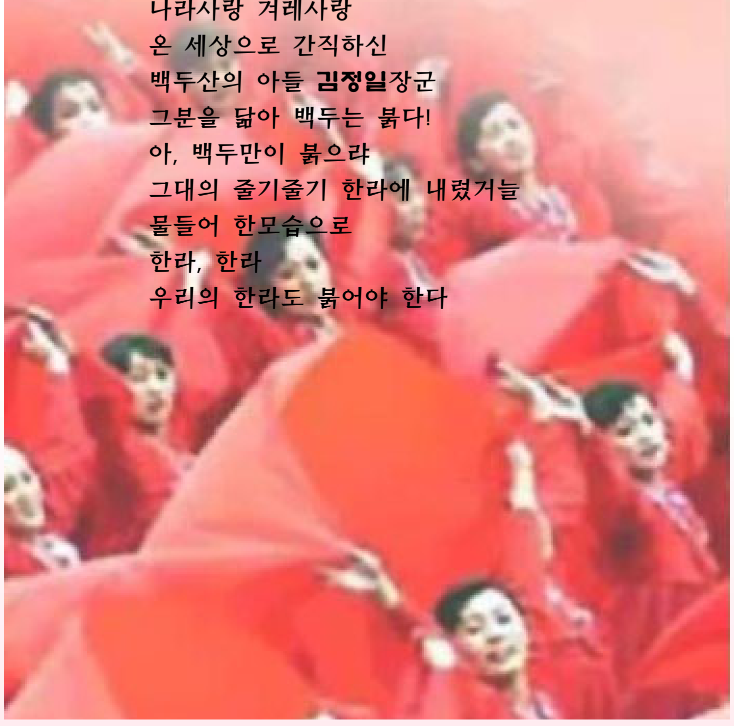
참으로 쑥섬혁명사적지는 애국애족의 경륜과 한없이 숭고한 도량과 포용력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통일전선의 훌륭한 기틀을 마련하신 위대한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통일애국인사들의 이름을 민족사에 길이 전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뜻이 뜨겁게 어려있는 유서깊은 곳이며 온 겨레를 민족대단합에로 불러일으키는 역사의 고장이다.

송시

붉은 백두

김남진 / 햇살들의 노래

노을이 타는 천상에 섰다
기나긴 이 나라 역사 반만년
누가 그대를 흰산이라 했는가
내 넋도 물드는 해돋이 순간
백두는 타는듯 붉다
머리들어 바라보는 하늘
천폭만폭의 붉은기를 띄웠는가
살같이 산제비 내리꽂히는
연봉의 아아한 기암괴석들
번쩍이며 붉은 광채 뿜는다
흙도 돌도 눈도
점점이 하나같이 붉은 백두
천지 물도 쇳물같이 붉게 끓어
한라산을 옮겨 잠근대도
그만 붉은 산 되리라
빼앗기고 짓밟힌
백의민족의 넋을 일으켜
여기 휘날린 그 기폭으로 붉은 것인가
광복전에 흘린
선열들의 더운 피에 젖어 붉은 것인가
붉음은 애국이며 애족이어라
나라사랑 겨레사랑
온 세상으로 간직하신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장군
그분을 닮아 백두는 붉다!
아, 백두만이 붉으랴
그대의 줄기줄기 한라에 내렸거늘
물들어 한모습으로
한라, 한라
우리의 한라도 붉어야 한다



흠모

김정일동지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가들의 빛나는 귀감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만민의 위대한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인류의 한결같은 염원이 실현된 데 대하여 말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모리셔스공산당 제1부위원장은 금수산기념궁전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시대와 역사 앞에 이룩하신 가장 큰 공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에는 성지들도 많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는 곳들도 많다. 그러나 금수산기념궁전처럼 인류의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 대하처럼 흐르는 성지는 없다. 오늘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여기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주체의 한길, 자주의 한길로 영원히 나아갈 신념을 더욱더 굳게 가다듬고 있다.≫

브라질의 공산당출신 국회의원 알도 아란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최고의 수준에서 꾸리도록 하시고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내세우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전체 인민을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따라 배우고 빛내여 나가도록 교양하고 계신다. 나는 그이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에 깊이 매혹되었으며 여기에서 위대한 정치가의 위인상을 체득할 수 있었다. 그 어떤 정치가도 조선에 오면 가장 숭고한 인간도덕의리가 어떤 것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원동국가공무원대학대표단 단원 엠마 쉐이꼬는 금수산기념궁전은 내용과 형식, 규모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꾸려졌다고 하면서 이곳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공산주의적 도덕관의 최고정화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김정일**주의연구회 상임부위원장 오까다 요시하루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고 방문록에 **김정일**각하께서 **김정일**주석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그이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하며 계속 빛내어 나가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주석의 영광의 역사를 세계인민들에게 훌륭하게 전해주고 계시는 **김정일**각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썼다.

구국의 소리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말라!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11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지금 이남 각계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 이룩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한 새해공동사설과 이북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서 민족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실천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계의 투쟁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까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김현규 : 지난 1월 통일연대의 주최로 열린 제3차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관철하려는 이남 민중들의 의지가 담긴 결의문이 채택됐는데요. 결의문은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속에 통일의 열쇠이자 지침으로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결의문은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집요한 분열정책에 맞서 7천만 겨레의 뜻과 힘을 모아 2002년을 6.15공동선언실현의 결정적 시기, 조국통일실현의 획기적인 시기로 만들 것을 천명했습니다.

사회자 : 이와 때를 같이해서 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은 반미선포식을 갖고 투쟁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선언문에서는 미국의 대북전쟁위협은 이남영구지배술책과 우리 민족의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파탄음모가 있음을 부경총련 20만 청춘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반미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6.15공동선언이행과 미국의 대북전쟁위협철회를 위한 모든 투쟁을 대학과 거리에서 부산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6.15공동선언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으며 미국과의 대결에서 종국적으로 웃는 자는 우리 겨레임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얼마전 경기대학교에서 진행된 반미투쟁결의식에서는 참가자들의 투쟁의지를 담은 결의문이 채택됐는데요. 대회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활력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공동선언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회자 : 그런가하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성명에서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가는 것은 되돌릴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공동선언이행에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준동에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한다≫고 지적했죠.

김현규 : 또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성명에서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래 우리 민족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그 길에서 우리 민족은 고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미국과 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의 준동이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있다. 오늘의 시련을 이겨내야한다. 전 민중이 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투쟁해나가야한다≫면서 올해 가열찬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총련은 성명에서 ≪조국과 민족의 부름앞에 서슴없이 나설수 있는 것은 심장에 아로새긴 공동선언이 있기 때문이며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열의 갈림길에서 절대로 물러설수 없다는 피끓는 분노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선언을 계속 높이 치켜들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대문을 여는 투쟁에 총매진하자≫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사회자 : 이같은 목소리는 부시미행정부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대북강경정책의 도수를 높이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하고 민족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해 나서는데 대한 우리 민중의 결연한 투쟁입장을 반영한 지당한 목소리가 아닙니까.

김현규 : 그렇죠. 그러나 부시는 이러한 우리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안하무인격으로 오히려 북을 걸고 악의 축이니 하는 참을수 없는 대북강경발언을 연발해 온 겨레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온 겨레는 부시의 무분별한 대북강경발언에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할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사회자 : 우리 민중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책동으로 민족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이 조성된다 해도 민족의 공조로 단호히 물리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기어이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분기해 나설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11일

한총련학생 석방촉구

한총련은 9일 경찰이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습시위를 단행한 학생들을 전원연행한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모든 소속단체들이 이들의 뒤를 따라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성명을 내고 각계에서 부시가 서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여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부시를 조롱하는 노래가 대인기를 끌고 있는 속에서 국회의원들까지 부시행각을 반대하는 기세에 공조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한총련대학생들의 투쟁은 청년학생들과 전 국민의 반미의지를 시위한 것으로 탄압의 대상이 될수 없다면서 공안기관은 연행된 한총련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정부당국도 국민의 반미시위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해야하며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를 확립해 6.15공동선언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도 대학생들의 시위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의로운 행동이라면서 연행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한총련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한반도전쟁획책하는 부시의 방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기자회견

6.25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강화희생자유족회 등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 공동대표 임헌영씨는 미군의 민간인학살문제는 과거의 역사청산문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문제라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마산 부감리유가족대표위원장 이남순씨는 50년 8월 10일 하루종일 미군비행기의 집중사격과 바닷가에서의 함선사격이 있었다면서 집안에 있던 84명이 죽고 일가족 모두가 죽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 단체의 2차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성명은 영국 비비씨방송이 상영한 다큐멘타리영화가 미군의 민간인학살이 미국방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면서 노근리를 비롯한 양민학살은 명령에 따른 계획적인 학살이였다는 것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더이상 민간인학살을 축소, 은폐하려 하지말고 사죄배상하며 더이상 전쟁범죄에 광분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언론이 사대주의근성으로 남의나라 언론이나 1면 보도하는데 그치지 말고 백만 민간인학살의 실상을 실제 조사해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데 앞장설 것과 정부당국은 전쟁전후 모든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을 주체적으로 조사하고 미국과도 당당하게 협의해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국회도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이 모든 것이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도입선언운동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를 위해 우선 도입장사자인 공공, 병원,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동시도입선언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동시도입투쟁을 벌이는 한편 정부의 민영화방침에 반대하는 발전, 철도, 가스 등 공기업노조들의 파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방북대표실형선고 규탄성명발표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는 서울 지방법원이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남측본부 성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을 규탄해 7일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법원의 실형선고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통일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법원이 6.15공동선언에 입각해 진행된 단체의 모든 행동을 이적행위로 낙인찍은 것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범민련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북을 여전히 적으로 규정하고 민간단체들의 통일활동을 이적행위로 몰아붙이는 공안당국의 처사는 시대의 퇴물로써 폐기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 길에서 굴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할 것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광철 - 구국전선 주체91, 1월 11일

지난해 1월 20일 부시정권이 출범한 때로부터 1년이 되어 오고 있다. 부시정권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대로 북미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이미 파탄된 대북강경정책을 새 세기에 또다시 들고 나와 북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 막고 우리의 6.15공동선언실현에 제동을 걸면서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부시정권은 집권하기 바쁘게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니, ≪강경≫이니 하면서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이북의 ≪재래식 군사력배치문제≫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대화를 진전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떠들었다. 여기에는 음흉한 본심이 깔려 있다.

그것은 ≪재래식 군사력축감≫을 코에 걸고 북과의 대화를 복잡한 상황으로 끌고 가며 그것을 언질로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켜 한반도에서 무력으로 이북을 병탄해 보려는 것이었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북이 ≪재래식 군사력축감≫에 응하지 않자 북과의 어떤≪합의≫도 ≪검증이 필요조건≫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전혀 타당성도 없는 핵 및 미사일과 관련한 문제까지 협상의제로 들고 나섰다. 심지어 그들은 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였으며 ≪북미기본합의문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나섰다.

부시는 ≪대화재개≫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여론을 기만하고 유혹하기 위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북을 걸고 들면서 감히 입에 담지 못할 극히 자극적인 악담까지 서슴지 않고 늘어 놓았다. 미국은 특히≪인권≫이요, ≪종교≫요,≪생화학무기≫요 하는 따위의 있지도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생트집을 걸다 못해 이북을 테러와 억지로 연결시키며 ≪대량살육무기개발여부에 대한 검증≫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한편 부시정권은 북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북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것은 부시정권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미국호전세력들은 힘의 대결의 주요 마당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창끝을 한반도에 돌리었다.

미국방장관이 ≪미군사력을 냉전시대의 유럽중심배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 국무성부장관이 ≪미국의 군사전략중심은 아시아로 옮겨졌다≫고 실토한 것 등은 그러한 사실을 실증해 준다. 지금 미국 호전세력들은 유럽과 미본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최신예무력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로 이동 전개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작성하고

실전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이남에서 무력증강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 ≪위험요인≫으로 몰아 붙이면서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하였다. 미국이 아프간전쟁으로 인한 ≪군사적 공백≫을 메꾼다고 하면서 본토의 1개 대대규모의 공군전투기들과 군사장비 등 기동타격무력을 이남에 새로 전진배치한 것은 그 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부시정권은 북을 압살하기 위해 무장해제, 군사적 압력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오늘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해 보려고 ≪반테러≫를 구실삼아 무모하게 북침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최근 호전적인 부시정권은 ≪반테러전쟁≫의 무대를 한반도에로 옮기려는 입장을 거리낌없이 내비쳤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지난 1년간에 북미대화를 백지화하고 강경압살책동으로 북에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남북화해과정을 차단시키고 북미적대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 간 것은 모두 아시아지배전략에 기인된다.

지난해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했다. 이북은 부시정권의 날로 악랄해지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선군혁명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나라의 국방력과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 결과 부시정권의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북의 대미자세와 원칙은 시종일관 명백하다. 미국이 선의적인 자세로 나오면 선의로 대답하고 강경으로 나올 때에는 초강경으로 맞서며 힘의 사용으로 나오면 정의의 전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미국은 이미 6.25전쟁을 통해 참패를 당했고 냉전시기의 위협봉쇄정책도 이북에는 통하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집요한 반북고립압살책동도 실패했다. 클린턴정권이 북미대화에 나선 것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에 기초한 것이었다. 부시정권이 20세기에 파탄된 대북정책을 새 세기에도 답습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미국은 남북화해와 협력, 자주통일에로 흐르는 한반도의 추세를 똑바로 보고 이미전에 파산된 대북압살책동을 즉각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호전광의 전쟁행각

조연택 - 구국전선 주체91, 2월 11일

이달 중순 침략전쟁의 괴수인 미국대통령 부시가 전쟁사환군들을 이끌고 서울행각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가 전쟁사환꾼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날아드는 것은 남북관계개선을 차단하고 이남당국자들을 저들의 전쟁전략에 끌어들여 무모한 북침전쟁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호전광의 전쟁행각이다.

또한 천문학적 액수의 무기강매의도를 실현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고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참을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대통령 부시는 악명높은 전쟁호전광이다.

백악관에 들어앉자마자 있지도 않는 이북의 ≪핵문제≫,≪미사일문제≫,≪재래식무기감축문제≫까지 거들며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동족간의 대결을 조장하기에 열을 올려왔다.

결과 이 땅에는 6.15공동선언이행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었고 화해와 단합에로 나아가던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로 치닫고 한반도에는 신냉전의 기류가 확산되게 되었다.

≪9.11≫사건이후 부시는 한반도에 기동타격무력을 전개하는 등 무력을 증강하여 긴장상태를 조성했고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결속단계에 들어서게 된 오늘날에 와서는 ≪반테러전쟁의 다음 목표는 이북≫이라는 도발적인 폭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노골적인 북침야망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한 이른바 ≪연두교서≫에서 이북을 ≪미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갖은 악담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폭언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북침을 위한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위험단계에 이르렀다.

워싱턴의 군수업체들에서는 북침전쟁을 위한 초강력지하관통무기로 개발된 ≪DEEPDIGER≫,≪AGM-86D≫로 불리우는 최첨단살인무기들이 다량생산에 들어갔으며 사정거리가 3백Km인 신형미사일까지 이 땅에 다량 반입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주변에는 미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한 대규모의 침략무력이 배치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한 부시의 방한은 6.25전쟁직전에 있은 덜레스의 전쟁행각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매우 심상치 않다.

하기에 지금 우리 민중은 경향각지에서 호전광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장장 반세기이상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피흘리며 싸워온 우리 민중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단합에서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는 부시의 방한을 결사반대해야 한다.

평화에 살고 자주와 통일에 살려는 이 땅의 애국민중은 경향각지에서 부시방한반대, 반미, 반전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11일

정일봉답사행군 직맹일군들

뜻 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시작되였던 전국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정일봉에로의 답사행군이 9일 끝났다.

이번 답사행군은 조선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일편단심 위대한 당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백두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 세기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다그치는데 앞장 서려는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적기상을 과시하는 뜻 깊은 행군으로 되였다.

지난 5일에 혜산을 출발한 전국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답사행군대는 보천보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으며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령도사적이 깃들어 있는 보서리샘물터와 중흥등판을 돌아 보았다. 삼지연못가에 도착한 답사행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다발들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으며 삼지연대기념비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군상들을 돌아 보았다. 이어 베개봉숙영지를 답사한 행군대는 7일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의 소백수골에 들어 섰으며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백두산밀영 고향집을 방문하였다. 답사행군대는 리명수혁명사적지도 답사하였다.

리철민군인에게 영웅칭호 수여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한 조선인민군 조동현소속부대 대원이였던 리철민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수여되였다. 지난 1월 리철민은 군사임무수행중 뜻하지 않은 일로 한 군인이 떨군 수류탄이 폭발하게 된 위기일발의 순간 주저없이 한몸으로 수류탄을 덮어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21살의 꽃나이에 장렬한 최후를 마치였다.

수여식이 10일 부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김영춘총참모장, 인민군부대 지휘관들과 군인들, 유가족들이 수여식에 참가하였다. 수여식에서는 리철민에게 수여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 그리고 렬사증이 그의 아버지에게 전달되였다.

≪악의 축≫론은 곧 조선전쟁론

≪로동신문≫ 11일부는 얼마전 미국대통령 부쉬의 ≪일반서신연설≫에서의 악담에 이어 그 행정부의 다른 공식인물들과 군부우두머리들도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반공화국압살공세를 강화하고 있는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론평의 필자는 그들이 우리 공화국을 그 무슨 ≪위험요소≫로 터무니없이 걸고 들고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면서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강행하려 하는것은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저들이 좌지우지하는 1극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이라고 까밝혔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쉬의 ≪악의 축≫론은 곧 조선전쟁론이다. 그가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폭언을 줴친데 이어 이달에 남조선에 기여 들려 하는것은 조선전쟁도발준비상태를 검열하자는데 주요목적이 있다.

미제는 조선전쟁도발에 ≪반테로국제련합≫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다국적무력까지 긁어 모아 우리를 덮치자는것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의 기본이고 세계제패전략이라는것을 뚜렷이 시사한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압력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만일 미제가 끝끝내 제2조선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에게 무서운 불벼락을 안길것이다. 선택권은 우리에게도 있다.

범남성원들에 대한 징역형선고비난

≪로동신문≫ 11일부는 남조선의 서울지방법원이 지난해부터 갖은 박해를 가해 오던 범민련 남측본부 2명의 성원들에게 끝내 징역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론평하면서 그 리면에 깔려 있는 음흉한 범죄적목적을 까밝혔다. 론평은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재판놀음은 반미로 불 타는 민심을 눅잦히고 인민들의 눈길을 딴데로 돌림으로써 상전의 행각을 무난히 보장하며 최근 미국상전을 찾아 가 조선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 넣으려고 광분하고 있는 호전적인 부쉬행정부에 아부한것으로 하여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있는 민족반역자 리회창의 죄악을 감싸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또한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우리와 접촉하고 통일론의를 한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판결문≫이라는데 북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 범민련은 ≪리적단체≫라는 문구까지 쪼아 박은것은 남측에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대화의지가 조금도 없다는것을 드러낸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통일애국에 무작정 칼부림을 해대고 미제호전광들과 민족반역의 무리를 반대하는 민심을 돌려 세우려 하는것은 죄악중의 죄악이다. 남조선당국은 대세를 똑바로 보고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책동을 걷어 치워야 하며 체포투옥한 통일애국인사들을 모두 풀어 놓아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2.16경축행사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5일 로므니아사회주의당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이 당 위원장 바씰레 오를레아누는 토론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혁명활동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며 조선을 부강번영할 강성대국에로 령도하여 오신 위대한 혁명실록으로 수놓아 진 력사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선군령도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4일 마다가스까르독립대회당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와 사회주의조선≫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독립대회당 전국비서 라자까리쑤아 누엘쑨이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라는 제목의 보고를 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오늘 조선에서는 선군정치를 기본방식으로 하는 새로운 선군시대가 펼쳐 졌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것은 **김정일**각하의 선군정치가 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는 **김정일**각하의 세계사적업적으로 된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2일 인디아 **김일성**동지로작연구청년소조와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는 ≪**김정일**, 그이는 일심단결의 중심≫이라는 제목의 련합토론회를 가지였다. 한편 6일 베이징에서는 중국국제우호련락회와 베이징국제우호련락회의 주최로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미국의 ≪테로행동포기≫주장을 규탄한다

조선중앙통신 론평

보도에 의하면 미대통령국가안보담당보좌관 라이스가 전국보수동맹회의라는데서 또다시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적대발언을 하였다. 그는 최근 부쉬가 ≪년두교서≫에서 한 폭언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대 탄도미싸일수출국≫이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날조선전으로서 우리를 모해하고 고립 압살하기 위한 비렬한 수작이다. 라이스의 허위선전에서 특히 문제시 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우리가 ≪테로행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날조에 기초한 극단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은것이다. 세계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세계최대의 무기수출국은 미국이며 탄도미싸일수출 역시 례외로 되지 않는다. 현재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싸일들과 2차세계대전후 미국본토밖에서 벌어진 지역분쟁과 전쟁들에서 사용된 미싸일들의 절대다수가 바로 미군수독점체들이 팔아 넘겼거나 미국의 후원밑에 개발생산된 사실상의 미국제 미싸일들이라는것을 라이스가 과연 모른단 말인가. ≪테로행동포기≫주장에 대해 말한다면 이미 우리는 온갖 테로와 테로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는 원칙적립장을 밝혔고 테로방지와 관련한 여러 국제협약에 서명가입하였으며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엄격히 지켜왔다. 이것은 미국당국자들도 인정해온 엄연한 사실이다. 때문에 라이스의 이번 주장은 ≪테로≫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압력은 물론 군사적공격을 가하겠다는 계획적이며 도발적인 전쟁폭언이나 다름 없다. 우리는 최근 부쉬의 ≪악의 축≫망발후 련이어 터져 나오는 랭전의 퇴물들의 이러한 전쟁폭언들이 대대적인 군비증강, 미군의 심상치 않은 준동과 결부되여 일촉즉발의 전쟁위협을 강요하고 있는 사태를 결코 관망하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경고와 자제력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을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미중앙정보국의 ≪대량살륙무기개발≫망발

조선중앙통신 론평

보도에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장관 테네트가 6일 미국회상원정보위원회에서 우리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싸일을 비롯하여 대량살륙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량파괴무기의 전 세계적확산이 결정적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망언을 늘어 놓았다. 이것은 요즘 미국의 정계와 군부에서 련이어 터져 나오는 류례 없는 전쟁폭언들이 바로 다름 아닌 미국대외정책의 직접적산물이라는것과 함께 미국정보당국이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나서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미국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의회에서 우리의 있지도 않는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에 들어 갔다는 사실은 미국에서 ≪선제공격≫설을 포함한 강경발언과 공화국에 대한 전쟁도발책동이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증거로 된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와 대량살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세계를 놀래우는 천문학적인 전쟁예산을 세운 나라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런 미국이 자체방위를 위한 작은 나라의 상용무력을 ≪대량살상무기≫라고 우겨대면서 저들을 ≪위협≫한다고 떠드는것이야 말로 주권국가들의 자주적권리를 모독하고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부언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저들의 동맹국의 핵무기개발시도들을 묵인조장하는데서 미중앙정보국이 담당수행한 막후 역할에 대하여 부인할수 없다는것이다.

자기와 일부 나라들의 엄청난 핵과 군사력에 대해서는 그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저들에게 추종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모략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해 압력을 가하는것은 ≪초대국≫의 체면에도 어울리지 않는 비렬한 처사이다.

미국은 온갖 비렬한 짓을 가리지 않으면서 강권으로 우리를 눌러 보려는 망상에서 깨여나야 한다.

미국은 조선이 없는 세계는 존재할수 없다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의지를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선군혁명 천만리
제1편 다박솔언덕에서(2)

로동신문 정론 주체90, 12월 15일

그렇다면 오늘 이 ≪갈림길≫을 지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과연 어디인가.

어버이수령님께 붉은 기폭을 덮어 드리시는 그 가슴 에이는 마지막밤에도, 수령님과 영결하는 100리 연도우에서 곡성을 터치며 몸부림치는 인민들의 처절한 정상을 눈물에 젖어 바라보시면서도 그리고 추모식장에서 통절하게 울리던 조포소리를 들이시면서도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만경대갈림길을 생각하시며 이런 말없는 심장의 문답을 수없이 나누시였다. 그렇게 내리신 결심이 바로 다박솔길이였다.

그렇다. 그것은 수령님의 말씀, 백두산의 웨침이였다.

혁명에서는 령도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개인의 선택은 한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지만 수령의 선택은 한 민족, 나아가서 세계의 흥망을 결정한다.

인류의 기나긴 정치사에는 ≪어제는 빠르고 래일은 늦으며 오늘이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 인민적인 혁명폭동을 일으킨 탁월한 정치가도 있었고 지금은 ≪무쇠와 피가 요구된다≫며 폭력적인 ≪철혈≫정치로 거대한 제국을 만든 정치가도 있었으며 국난의 시기에 적대국에 굴종하여 국가의 존엄을 일신의 안락과 바꿈으로써 후날 인민의 심판대에 오른 비참한 정치가도 있었다.

다박솔길, 말이 쉽지 간단한 걸음이 아니였다.

보통의 상식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두 길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겹쌓이는 재난을 참고 견디다가 쓰러지고 마는가 아니면 렬강들과 타협하여 경제구원의 길을 여는가 하는수밖에 별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경제가 망하면 국가도 망한다≫는 미국식론리에 추종하여 적들은 물론 벗들까지도 조선은 어차피 경제중시의 길을 택할것이라고 장담했으며 서방세계에서는 ≪북조선붕괴설≫과 함께 최선의 희망으로서 ≪북조선개방설≫이 나돌았다.

그러나 당시 형편에서 경제에 매달리는 것은 목전의 리익을 얻는 대가로 제국주의두뇌진들이 매우 로회하고 치밀하게 짜놓은 보이지 않는 함정, 사회주의전복음모에 스스로 말려드는 자멸의 길이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벌써 사태의 본질을 명철하게 꿰뚫어 보시고 무작정 앉아 버티는 절망의 선택도 아니고 적들의 경제봉쇄의 제물이 되는 길도 아닌 장군님식의 새로운 길, 선군혁명의 길을 택하시였다.

제멋대로 재잘거리는 수다쟁이궤변가들이 일시에 입을 다물고 온갖 음모가들이 아연실색해졌다. 보통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위대한 천재는 없는것을 만들어 낸다.

참으로 천재적인 전략가이시였다.

≪다박솔충격≫은 세계를 진감시켰다. 제국주의가 살판치는 오늘의 지구에 유일하게 정의를 대표하고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위대한 힘의 체현자 백두산호랑이가 포효를 터쳤다.

장군님께서는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는 것보다 몇천몇만단수 더 내다보는 세계전략의 명줄과 근본열쇠를 령활하게 틀어 쥐시였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하는 시대, 아무리 옳아도 힘이 약하면 주권국가도 마구 폭탄세례를 받아야 하고 나라를 위해 싸움에 나섰던 국가수반도 재판장의 피고석에 앉아야 하는 오늘 장군님의 다박솔길은 온 지구를 흔들어 깨운 희망의 불길이였다.

자기 민족을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라고 하였다. 옷은 누구나 입혀 줄수 있지만 존엄은 누구나 줄수 없다. 쌀이냐, 총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결단코 총대를 잡은 장군, 우리는 여기서 정치가 이기전에 수령이시고 애국자이시고 인간이신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혁명세계를 가슴 뜨겁게 절감한다.

력사는 오래동안 많은 경우 힘의 정치를 제국주의독점물로 여겨 왔다.

시대는 달라 졌다. 인류는 처음으로 진정한 힘의 체현자, 정의의 맹장을 맞이하게 되였다.

다박솔길은 말그대로 21세기 위대한 힘의 선택, 정의의 힘의 분화구였다.

그것은 백두산바람으로 이 지구의 흙먼지바람을 쳐갈기며 따웅-소리와 함께 솟구쳐 오른 세계의 ≪맹호출림≫이였다.

적들은 장군님의 이날의 현지시찰보도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며 **김정일**최고사령관이 전연에서 60마일 떨어진 미싸일부대를 방문하였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결코 오보가 아니였다.

그렇다.

그것은 철덩이미싸일 몇만몇억개보다 위력한 ≪정치미싸일≫, 백두산자주화바람을 안은 ≪선군혁명미싸일≫이 지구에 날아올랐음을 통감한 응당한 공포였다.

그것은 제국주의머리우에 불벼락을 내리는 인류의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 백두산천출명장의 출현을 예감한 통쾌한 아우성이였다.

세계는 진짜장군을 보았다.

오만한 제국주의자들에게 공포와 죽음을 줄 무서운 백두산전략가를 보게 되였으며 21세기 이 지구의 가장 힘있는 주인공을 보게 되였다.

다박솔, 우리 이제 이 이름을 단순한 지명으로 외울수 없다.

1995년 1월 1일, 우리 이제 이날을 평범한 날의 하루로 생각할수 없다.

다박솔은 선군시대의 진정한 고향으로, 95년 1월 1일 선군정치의 탄생일, 선군혁명절로 력사에 기록되게 되였다.

2

백두산장군의 선군혁명결사전이 시작되였다.

다박솔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운 혁명의 폭풍을 불러 백두산에 들어가신 것과 같은 비장하고 격렬한 영웅적장거였다. 여기에 산악을 맹렬히 들부시는 눈보라의 울부짖음도 없고 장엄하게 설레이는 천고의 밀림도 없다.

그러나 백두산눈보라 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 빨찌산전구에 선것만 같다.

고요한 다박솔이 아니라 폭풍치는 다박솔이다.

첫 무장대오의 탄생으로 장백의 산발을 뒤흔들며 광복대전의 출전북을 울렸던 32년의 안도의 수림이 여기에 보이고 빨찌산행장을 치고 백두산에 들어와 눈보라혈전만리길에 결단코 오르시던 항일혁명의 김대장의 모습도 여기서 다시 본다.

≪나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이다.≫

지금에 와서 보면 다박솔초소에서 돌아오신 저녁 인민군 지휘성원들앞에서 하시였던 장군님의 이 엄숙한 말씀은 초소에 두고 온 병사들에 대한 류다른 애정이나 그리움만이 아니였다.

아, 얼마나 심장이 뜨겁게 불 타오르시였으면 이런 비상한 각오를 품으시였으랴. 그것은 가장 성스러운 위업의 새로운 출전을 위하여 자신의 심장에 내린 폭풍신호, 전투명령이였다.

다박솔, 바로 그때부터였다.

그때부터 수도 평양의 당중앙이 아니라 멀고 험한 천리방선 전선길로 장군님의 주소가 달라졌으며 그때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뵈와 온 장군님의 모습은 위장망을 친 최전방지휘소나 바람 세찬 고지우에 서계시는 전선사령관의 모습이였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 생활에는 ≪전선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생겨나고 장군님의 혁명활동은 집무실이나 회의장이 아니라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빨찌산식의 강행군현지지도로 시대를 진감시켰다. 말그대로 백두산전장을 달리는 빨찌산장군의 영웅기상였다.

바로 그래서였다.

그래서 장군은 다박솔언덕을 내려 그리도 자주 백두산을 찾으신것이 아니였던가. 백두산에 올라 때로는 붉게 타오르는 해돋이도 보시고 령하 40도씨의 눈보라 10리길을 걸어 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빨찌산의 탄피가 묻힌 밀림의 옛 전구들을 밟아 보기도 하시면서 전선길에서 백두산으로, 백두산에서 다시 전선길로 이렇게 수십만리를 이어 가신것이 아니였던가.

그렇다.

다박솔은 이땅에 혁명의 우뢰가 울고 눈보라가 폭풍치는 빨찌산전구, 백두산밀림을 펼쳐 놓았다.

장군의 신호총성에 따라 천만의 군대와 인민이 선군혁명 총진군결사전에 진입했으며 전선도 후방도, 종심도 익측도, 온 조국땅이 하나의 선군혁명전선이 되였다.

근 7년을 그렇게 싸웠고 수십만리가 그렇게 이어 졌다.

다박솔은 그 푸른 머리를 높이 들어 시대와 력사앞에 소리쳐 웨친다.

선군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였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의 전쟁, 하나의 혁명이였다.

처음에는 전선시찰보도가 자주 나오고 그에 이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우는 사회적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으며 그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정식화가 나오고 오늘은 그것이 선군혁명이라는 말로 그 의미가 비상히 커졌다.

선군은 제2의 조선혁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렇다, 혁명이였다.

그것은 제국주의를 사상과 함께 힘의 정치로 제압하고 인류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세계사적인 대격전이였다.

그것은 인간도 사회도, 당도 국가도 혁명강군의 사상과 정신,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일신하는 새로운 한 시대의 개척이였고 백두산민족다운 존엄과 배짱으로 사회주의 건설로부터 강성대국건설에로 시대를 변혁하는 민족사적대업이였다.

혁명에는 필연코 용감무쌍한 제1기수, 선구자들이 있어야 하며 새 시대 개척에는 언제나 력사의 주인공들이 있다.

≪인터나쇼날≫의 노래 부르며 자본의 아성에로 육박해 가던 시대에는 마치를 잡은 로동계급이 가장 힘있는 주력군이였다.

그 누가 말했듯이 맑스는 로동자를 일으켜세워 수자보다 더 정연히 종대를 편성하고 그를 이끌었다. 로자간의 모순이 폭발하던 계급투쟁의 시대로부터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적운명개척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시대로 력사의 흐림이 바뀌여진 오늘 진정한 혁명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세계사적대답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선군후로의 총대혁명관이다.정의는 오직 힘으로만이 지킬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성새인 조선은 마땅히 자주강국이 되여야 한다는 대륙적인 경륜을 펼치신 장군님께서는 이 위업의 믿음직한 담당자로서 총대를 잡은 인민군대를 내세우시였다.

선군의 뿌리는 주체사상이다. 오늘의 정의는 주체이며 그것을 실현할 최대의 힘, 최대의 무기, 최대의 전략은 바로 선군이다.

선군혁명로선은 21세기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 더하기 선군혁명로선, 이것은 오늘의 위대한 **김정일**동지혁명사상으로 온 세계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있다.

력사의 다박솔길은 이렇게 열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런 거창한 혁명대강을 구상하신데 토대하여 인민군대를 주체위업의 기둥군으로 하는 새로운 전략구도를 편성하시고 오늘의 백두산길인 다박솔길에 오르시였다. (내일 계속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 강좌 제169회

김경희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11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신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정력적인 저술활동을 벌리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하시고 빛내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대국상을 당한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정력적인 저술 활동을 벌리시였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 역사를 돌아켜보면 혁명의 배신자, 기회주의자들은 선대 수령의 생존시에는 경애하는 어버이, 스승으로 예찬하다가도 수령이 서거하면 그의 사상을 거세말살하려고 책동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가 무너진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사상,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말살하기 위한 반사회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더 악랄하게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저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1월 1일 고전적 노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지켜나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노작을 발표하시면서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아 대를 이어 순결하게 들고 나가는 사람이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라고 하시며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4(1995)년 10월 2일에 발표하신 고전적 노작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에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나날에 쌓아올리신 업적의 위대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어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 확고부동한 결심을 뚜렷이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온 세계에 널리 선전하여야 하며 실지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수령님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작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몸소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신대로만 하는 모든 것을 **김일성**동지식으로 해나갈데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수령님께서 마련해놓으신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며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야한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밝힌 강령적 지침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심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 영도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온 민족이 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헌장을 받들어 통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외에도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노작들에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비범한 사상이론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해나가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50돐을 맞으며 당창건기념탑을 건설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체83(1994)년 6월초 당창건기념탑건설을 발기하셨는데 여기에는 조선노동당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해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쳐갈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체83(1994)년 7월 7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 형태의 형성안을 몸소 보아주시면서 마치와 낫과 붓을 수직으로 세우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상징한 원형띠로 탑을 형성한 안이 제일 독특하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그 형상안을 더욱 세련시키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만수대 언덕에 높이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한 축상에 놓이는 문수광장에 당창건기념탑을 건립하도록 그 위치를 잡아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창건 50돐에 건립한다는 연대적 의미를 부여하여 탑의 높이와 원형띠의 폭을 50미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탑을 규모를 정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11월 19일 기념탑 모형삽화를 보아주시고 탑의 원형띠의 표면에 우린 인민들의 생활속에 익숙된 조선인민의 모든 신념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구호를 부각할데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건설을 당원돌격대에 맡겨주시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당창건기념탑이 건설되어 주체84(1995)년 10월 9일 당창건기념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습니다. 당창건기념탑이 건설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위업과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당창건 50돐경축행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의의깊게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체84(1995)년 10월 10일 아침,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경축대표들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어버이 수령님의 영전에 인사를 올리고 충성의 맹세를 다지는 것으로부터 경축행사를 조직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금수산기념궁전 참관행사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창건의 역사적 위업을

우리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온 세계에 널리 선전하여야 하며 실지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수령님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이룩하시고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심을 높이고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다음으로 열병식 및 군중시위가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예술을 표시하여 진행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열병식에서는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장중한 주악에 맞추어 수령님의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군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또한 백만명의 군중시위도 대열앞에 어버이 수령님의 대입상을 모시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선율에 맞춰 나가도록 하시였고 어버이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 깃발 대열과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가장물을 비롯해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를 보여줄 수 있게 군중시위 대열을 편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5만명이 출연하는 집단체조 ≪주체사상에 기치따라 영광의 50년≫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배경대에 여러번 정중히 모시고 매 장들이 수령님의 업적을 칭송하는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감동깊게 보여주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10만명 청년학생들의 횃불행진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들을 선두에 정중히 모시고 ≪**김일성**≫, ≪영생≫,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등 우리 청년들의 불굴의 신념과 충성의 맹세를 담은 글발을 횃불로 새기면서 행진해나가게 하시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당창건 50돐경축행사는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가지고 뜻깊게 진행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고는 당창건 55돐경축행사에도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 창건 55돐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경축행사들을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차 넘치게 장엄하고 특색있게 진행되도록 하시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55돐경축행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우리 인민이 세계 사회주의 보루를 시위하고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돌진해 나가는 조선민족의 수기와 기개를 만천하에 떨친 대서사시적 화폭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음으로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서거 3돐을 맞으며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할데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이 채택됨으로써 자자손손 내려가면서도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혈통이 굳건히 이어지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의 민족의 역사는 영원히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역사로 흐르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빛내나갈 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북 해외동포 함께 전쟁위협 단호히 물리치자

강정구교수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75호 - 특별기고)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 모두는 부시의 한반도 전쟁촉발 정책에 의해 고귀한 생명권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전쟁광적인 정책을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정부의 의무는 공격이 취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습공격을 부추기고 있다.

의회를 비롯해 미국 국민의 80%가 넘게 우리의 고귀한 생명권을 짓밟아버릴 한반도전쟁 위협에 박수갈채를 보이면서 막가파식 부시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하고 있다. 이미 부시는 9.11테러이후 의회의 승인 없이도 기습전쟁을 감행할 권한을 걸머지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볼 줄 아는 전문가는 이구동성으로 ≪미국이 이북의 태도 변화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남쪽이 미국을 설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미국과 이북간의 북 · 미 전쟁으로 끝날 수 없다.

전쟁은 주한미군이 중심이 되고 작전지휘권도 없는 한국군은 원하든 아니든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아 자동적으로 미국의 전쟁에 동원되어 우리 이북동포에 총뿌리를 겨눠야 한다. 그 결과는 미국과 한반도 사이의 전쟁이며 남이든 북이든 우리 민족은 대부분 처참한 죽음에 내몰리게 된다.

99년 5월 24일 ≪한겨레≫와의 대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94년 6월 전쟁 일보 직전 상황에 대한 회고에서 ≪하루는 보고를 받으니 내일…대사관 직원 가족들의 철수를 발표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전쟁 직전에 취하는 조처다. …남북에서…천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 …그 날 저녁 클린턴하고 32분 동안 통화했는데 대판 싸웠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한반도전쟁에서 남과 북은 운명공동체라는 것과 또 전쟁국면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어야할 의무를 가진 우리의 대통령마저도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기막힌 사실을 말해준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페리는 2001년 6월 제주도 평화포럼에 참석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하겠지만 한국군, 미군, 한국 국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주한미군을 수만명 증원하는 계획을 입안했고, 주한미대사관에 민간인 철수계획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 개시를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는 …김일성의 전언을 받아 협상에 나선 것이다.≫

정작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이 절박한 전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의 주류 정치계와 주류언론은 전쟁을 막기보다 오히려 미국의 주류처럼 전쟁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이북이 ≪미사일 개발은 물론 세계 제1의 미사일 수출국≫이며 CIA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년에도 핵무기 기술을 확보하려했고, 최소한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만한 플루토늄을 생산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햇볕정책 때문에 한미간의 이견이 생겼으며 올바른 길은 햇볕정책을 버리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따르라는 것이다. 또 한 대표적인 정치인은 미국까지 가서 이들 전쟁광 앞에서 이북 핵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을 것을 주장하여 미국의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했다.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북미제네바협정 위배이고 국제원자력기구 협정 위배이다.

이북이 1억 불도 되지 않는 무기수출국인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미사일 수출국≫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당이 과연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인가.

또한 94년 이후 북미제네바협정에 의해 일체의 플루토늄 생산이 중단되어 있고 이북이 이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측도 인정하고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플루토늄을 생산해 왔다는 CIA주장만 금과옥조처럼 되풀이하는 이들의 지적 능력은 초등학교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닌가.

98~99년 미국은 금창리 핵개발 의혹을 빌미로 90년대 세번째의 한반도 전쟁위협을 벌렸다. 그러나 정작 사찰을 해 본 결과 사실무근임이 판명됐다.

럼스펠드 보고서는 98년 7월 이북이 5년 이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파괴한다고 했으나 이는 조작임이 드러났다. 이런데도 작금의 미국의 황당무계한 대 이북전쟁 빌미를 사실인양 부화뇌동하는 이들은 과연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언론인가.

한반도 전쟁위기를 이북 혼자서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남과 북 해외동포 모두가 함께 손을 잡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먼저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전쟁불가선언≫을 지구촌에 공포하고 이를 단호하게 미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와 함께 긴급히 ≪전쟁방지특별기구≫를 구성하여 나라의 총력을 전쟁방지에 쏟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남과 북은 긴급 비상고위급회담을 소집해 남북공동으로 ≪한반도 전쟁반대 선언≫을 하고 이에 필요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소에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한반도 전쟁위협을 강조해 왔고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이제 그는 미국의 광기와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다운 한국 사대주의 무리들에게 과감히 맞서야 한다. 일년 남은 임기동안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우리 민중 · 시민사회 역시 각 부문별로 전쟁방지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이 전쟁저지의 대열에 동참하여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전쟁을 획책하는 미국과 국내 주류언론과 주류 정치세력 및 냉전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책 또한 실현해야 한다.

더불어서 이북의 대응 단체와 함께 전쟁반대 공동선언 등 연대운동을 펼쳐 우리 민족 내부에 결코 전쟁을 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지구촌에 알려 지구촌 연대도 모색해야 한다.

월드컵기간에 축구만 구경할 것이 아니라 전쟁반대 경기도 지구촌 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겨레의 역량을 전쟁방지에 집결하는 단호한 대처만이 이 막가파식 전쟁놀음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영상전화추진

정보통신부는 남북간 대화 재개 및 협력관계 추이를 보아가며 이산가족 ≪영상전화 만남≫, 우편물 교환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남북 장관급 회담이 무기 연기되는 등 대화채널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 당국자간 합의를 통해 이산가족 영상대화를 성사시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북은 현재 판문점 북측지역과 평양간에 광케이블을 이미 설치하고 있어 남북 당국간 합의만 이뤄지면 기술적으로 남북간 이산가족 영상전화 만남을 주선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성기자
연합뉴스 2002/02/12

등록금 투쟁 이색시위 대학본부 ≪가압류≫

전국 각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른 대학본부와 학생들간의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산업대에서 이색적인 등록금 시위가 벌어져 눈길을 모았다.

오전 11시부터 서울산업대 총학생회는 본관 항의 방문 후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대학 본부 각 행정부서 물품에 ≪가압류 스티커≫를 부치는 등 등록금 인상 반대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했다. 현재 서울산업대 학생들은 예산 편성위원회(위원장 : 김경진 부총학생회장)를 구성하여 학교 당국과 12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향후 등록금 납부 연기운동, 사이버 릴레이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산업대 1공대 박성태 학생회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조건 학교 입장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고 4공대 이태욱 학생회장도 ≪학생들의 투쟁을 무마하기 위해 총장님은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어디에도 등록금 인상의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학교 당국을 비판했다.

또한 홍동희 총학생회장은 ≪단순한 등록금 인상 문제만이 아니다. 지금 대학 당국의 모습을 보면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으며 과연 누가 대학의 주인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학우들이 학교의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헌 기자
유뉴스 2002/02/08

미전문가들, 부시 대북강경발언 위험한 결과 초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이북에 대해 강경하게 발언한 것은 약화되고 있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위험스러운 결과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11일 경고했다.

미국의 외교정책 연구단체인 외교협의회(CFR)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모튼 아브라모위츠와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된 공동 기고문에서 부시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조만간 이북을 파괴 또는 그 행동변화를 강요할 것임을 암시적으로 위협했다고 밝히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들 전문가는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전 행정부가 추진하던 이북과의 미사일 및 관계정상화 협상 재개를 거부하고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면서 ≪부시행정부의 출현이 김 대통령과의 결별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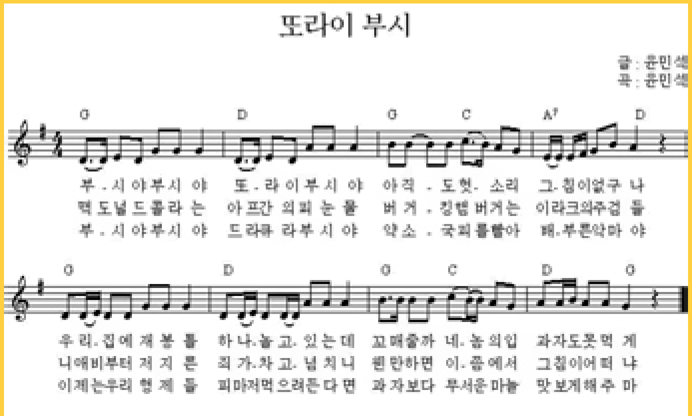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북과의 거래에 대해 ≪악의≫를 보여왔으며 최근의 발언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의 국정연설을 통한 대(對)이북 경고는 ≪위세가 떨어지고 있는 한국대통령에게 또다른 칼을 들이대는 것 이외에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위험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부시 대통령이 진정으로 이북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면 남이북과 미국에 단기적으로 미칠 막대한 재난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고립과 원조중단을 통해 평양정권을 붕괴시키려 한다면 이북의 주요 원조국인 중국과 맞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들은 이어 이북이 부시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놀라고 아마도 우려하고 있겠지만 이 발언이 이북을 붕괴시키거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판단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며 그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수출이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신기섭특파원
연합뉴스

과자보다 무서운 ≪마늘≫맛을 보여주마



≪악의 축≫ 발언으로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풍자노래가 또 나왔다. 얼마 전,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과자를 먹고 졸도한 사건을 담아 ≪기특한 과자≫라는 노래를 만들었던 작곡가 윤민석씨가 이번에는 ≪또라이 부시≫ 제목의 노래를 내놓았다.

≪부시야 부시야, 또라이 부시야, 아직도 헛소리, 그침이 없구나≫로 시작하는 노래는 부시 대통령을 약소국 피빨아 먹는 ≪드라큐라≫에, 배부른 ≪악마≫에 비유했다. 더불어 이번에는 과자보다 더 무서운 ≪마늘≫을 맛보여 주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한다.

김장효숙 기자
유뉴스 / 2002/02/10

≪노리개≫감이 된 나라의 지도자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부시 ≪악의 축≫발언

냉전시절에는 리영희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인 몽땅 까무러치기≫증상이라는 것이 연례적으로 반복된 바 있다.

즉 미국의 중요 인사가 ≪주한미군 철군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마디만 슬쩍 던지면 국내 언론이 ≪안보위기≫를 대서특필하여 온 나라가 집단 히스테리 상태에 빠지고, 곧 ≪미군철수 주장하는 자는 반역자다≫라는 관제 데모대가 등장한다.

이 틈을 타서 미 행정부는 한국의 미 군수물자 구입과 한국쪽의 주한미군 주둔비 증대를 슬쩍 제시하고,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은 확고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고, 결국 한국 내 보수세력은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시나리오에는 한국과 미국의 ≪애국자≫들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정설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냉전이 끝난 오늘 이 시점 한반도에서 이런 아이들 장난같이 속이 뻔히 보이는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이회창 총재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이회창과 부시는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이회창 총재가 부시 대통령쪽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사태의 전모가 드러난다.

부시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곧이어 ≪악의 축≫발언을 흘림으로써 ≪햇볕정책≫에 비판적이던 한국 내 야당과 보수언론을 부추겨 한국 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호통(snub)을 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보수언론 부추겨 김 대통령에게 호통친 부시

물론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은 이북의 미사일 공격 위험을 강조하고, 김대중 정부의 정책적 입지를 없앰으로써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에 매달리도록 하고, 체면을 세워주는 척 하면서 F15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부시의 ≪악의 축≫발언과 그것이 한국과 한반도 내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미국의 ≪철군 고려≫, ≪안보 위험≫등의 발언들과 그것이 미쳤던 영향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과거의 ≪철군≫발언들이 한국 내 군부세력이 위기에 몰렸을 때 한국 내의 권력 관계를 보수세력에게 유리하게 재편시키고 미국의 무기 장사에 도움을 주었다면, 이번의 ≪악의 축≫발언은 잠시 자리를 잃었던 한국 내 ≪주류≫세력을 다시 등장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발언이 실제 이북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미국인들 자신의 입으로 말했듯이 ≪수지타산에 투철한 현실주의≫의 행동일 것이다.

남-이북의 긴장이 증대하여 대화가 단절되고, 미국이 무기를 더 많이 강매하여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번 발언의 정치적 효과가 마무리된다면 부시 행정부만이 최대의 승자가 되는 것이고 한국인들을 또 한번 미국의 노리개감이 된다.

문제는 최근 미국의 일련의 행동들과 권력장악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드는 일까지도 동의할 한국의 ≪주류≫보수세력들이 한국전쟁의 비극과 남북의 소모적 대립으로 인해 초래된 비극과 분단유지 비용을 망각하고 여전히 과거와 같은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강원룡 목사는 1%의 전쟁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힘주어 호소하듯이 강조했다. 미국에게 전쟁은 비즈니스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전쟁은 수십만이 목숨을 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재앙이다.

그래서 설사 부시가 미국 내외부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만으로 ≪악의 축≫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이북의 화해 무드를 원점으로 돌리고 북 미간에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일으킬 가능성은 최대한 없애야 하는 것은 미래를 책임질 정치세력이나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잘못되었고, 이북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야당 정치지도자나 보수언론들이 전쟁의 위험을 직시하면서도 이북에게 회초리를 들이대거나 무력을 들이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산가족이 영원히 못 만나고, 전쟁으로 동포가 목숨을 잃더라도 권력만 잡을 수 있으면 좋다는 이 행태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민족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썩은 조선 왕조의 수구세력, 친일, 이승만과 반공 세력에게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이제 이들이 그러한 논리를 갖고서 다시 권력을 잡겠다고 한다. 빈대는 죽을 지 몰라도 초가삼간이 사라질 것이다.

오마이뉴스
2002/02/12

진보정당 운동 주체적으로 나선다

정대연/전국연합 대변인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75호)

지난 2월 3일 열린 전국연합 11기 대의원대회는 91년 출범 이후 전국연합이 걸어 온 10년 역사를 총화하고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대회였다.

전국연합은 11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10년의 전망! 3년의 계획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조국통일 완수하자!≫는 구호로 집약된 ≪정치조직방침≫을 채택하였다.

10년을 전후로 하여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조국통일완수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밀고 나갈 조직적 무기로 광범위하고 강력한 민족민주전선과 진보정당 건설을 3년의 계획 아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 동안 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대립해 오면서 운동의 혼란과 분열을 낳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전국연합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민족민주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을 통일된 노선으로 정립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연합은 ≪정치조직방침≫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이 중심이 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을 위해 민족민주운동 ·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준)≫를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각계각층을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정치강령아래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는 데 헌신 복무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그 동안 ≪전국연합강화≫이냐 ≪전선확대재편이냐≫하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연합은 또 정치조직방침을 통해 진보정당운동에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선거와 의회활동만으로 변혁을 완수하려는 합법주의를 경계하면서도 합법정치 공간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대중에게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가는 진보정당 건설에 나설 것을 결의한 것이다.

소속단체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진보정당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전조직적 동의 속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운동에 조직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국연합은 진보정당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민주노동당과 적극 협력하여 광범위한 진보진영의 결집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2002년 양대 선거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후보를 출마시킬 것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과 공동대응하고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등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 △강력한 대중투쟁과 ≪범국민적 정치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할 것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총단결에 기초하여 진보진영의 독자후보로 국민대중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세력으로 다가갈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격변하고 있는 정세를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요청 받고 있는 시기에 전국연합이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에서 결의한 정치조직방침이 운동의 단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전국연합은 이를 위해 겸허하게 복무할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강화≫ 재확인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75호 (2.8~2.14)

논란 일단락...정치사안 주요 요구로 처음 채택

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정치방침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위한 당원 확대사업과 더불어 당의 실질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로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켜나가는 과정인 지방선거에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다수 출마할 수 있도록 조직적 결의를 모아갈 것 △정당명부제, 정치개혁,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민주진보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강화할 것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각 단위노조별로 정치위원회(정치부)를 구성할 것과 정치교육 강화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치방침결정으로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좀 더 힘있게 정치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최승회 민주노총 정치국장은 ≪민주노동당 강화라는 정치방침에 대해 더 이상 쓸데없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치위의 정치방침을 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명부제 실시를 민주노총 주요요구로 채택했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태일 민주노총 정치위원장(민주노동당 부대표)은 ≪정치적 사안이 민주노총 주요 요구로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며 ≪조합원들이 정당명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노동자 대회 등 각종 집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정당명부제 필요성에 대해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정치방침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하겠다는 단순하면서도 의미깊은 결정≫이라며 ≪대중조직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변함없는 지원과 지지를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당원 확대 사업을 비롯한 정치사업을 펼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단위노조에 정치위원회(정치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각 연맹별 구성현황을 매월 집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양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정치적 관심이 어느 해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위노조에 정치위를 반드시 신설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지로 삼겠다는 의지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달 15일 중앙위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지구당 조직이 없거나 당조직과 함께 연대, 연합후보로 조정하여 출마하는 경우는 예외) 각 지역 본부별로 지방선거후보자를 물색하는 동시에 민주노동당 지구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민주노총은 월 1회 정책협의회를 열고 선거공약 등을 논의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양 조직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소수 이견 압도적 표차로 정리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중앙위에서는 민주노총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 왜 ≪반드시≫ 민주노동당후보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민주노동당을 통한 출마가 조합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000년 4. 13 총선 이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선거대응이 일보 진전된 전술이었다≫는 공식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만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대한 일부의 이의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결국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중앙위에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로 추인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한다는 원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통한 출마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안은 찬성 4표(86명 참석)로 부결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23차 대의원대회에서도 중앙위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수정안이 다시 제출됐다.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은 참석 대의원 4백23명 중 64명만이 찬성하는데 그쳐 폐기되고 원안이 통과됐다.

지난 1999년 8월 15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창당을 결의했던 민주노총은 2000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그해 1월에 창당되는 민주노동당 강화방침과 선거방침을 정했다.

이후 2001년 정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성원미달과 유예로 인해 정치방침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다가 이번 23차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강화방침을 표결로 정해 이제까지 논쟁을 확실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4)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2001년 9월 18일 작성

차례

(1) 조 · 미 관계의 본질과 세 차례의 정치적 합의
(2) 사회주의혁명의 최대 시련기에 발휘한 북(조선)의 돌파력
(3) 조 · 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과정
(4)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수립이 가지는 의의
► (5) 민족민주전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5) 민족민주전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할 전략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조국통일 실현이다. 이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몇 가지 당면과업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족민주전선은 제국주의세력을 한(조선)반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한(조선)반도에서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은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전선에 가세 · 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조선)반도의 반제전선은 전민족적인 반제자주역량과 제국주의세력 사이의 투쟁이 벌어지는 전선으로 확장될 것이며, 그로써 반제전선의 결정적 승리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사실은, ≪가세 · 결집≫이라는 개념은 전술개념이 아니라 전략개념이라는 점이다. ≪가세 · 결집≫이라는 전략개념은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민족민주전선역량의 통일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개념이다. 반제자주역량의 통일전선이라는 말은, 강대한 제국주의세력에 맞서 싸우는 반제투쟁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진 채 산발적, 분산적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반제투쟁은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단독역량으로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무릇 자주시대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반제전선은 한결같이 전민족적 통일전선이며, 한(조선)민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지금 한(조선)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반제전선은 군사 · 정치적 대결과 대중적 정치투쟁이라는 두 가지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역량은 국가역량을 총동원하여 군사 · 정치적 대결을 벌이는 반제전선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민족민주전선역량은 국가역량을 동원할 수 없는 조건에 있으므로 대중의 조직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킨 반제전선으로 강화 · 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은 대중적 정치투쟁의 성격을 지닌다.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대중의 조직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킨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단일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 때 반제전선의 승리는 반전시킬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질 것이다.

2)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부동의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한(조선)반도에서 반제전선을 민족통일전선으로 확대 · 발전시켜 승리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목표는 반제민족통일전선의 승리와 함께 실현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면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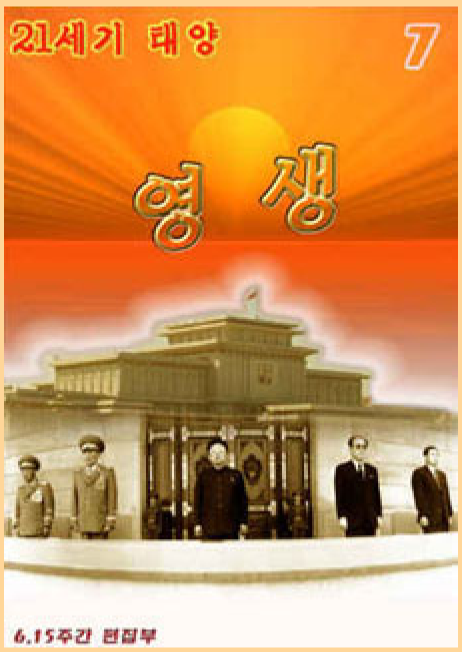
(1).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남(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 · 수탈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한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 · 수탈구조에서 벗어

➡

광고

PDF자료집

21세기 태양



명제
4 **김일성** 주석님의 위대성에 관한 장군님의 명제

노작
6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노동당 보고
14 위대한 **김일성**동지탄생 89돐기념 중앙보고대회

한민전 중앙위
22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23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경의
24 **김정일**총비서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구국전선 /구국의 소리
30 **김정일** 영수의 5년위업과 민족의 운명
-민족의 태양 영생위업
-민족의 자주권 수호위업
-명장의 진가는 난시에 판별된다
-강성부흥국 창출위업
34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실현
36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태양의 모습
40 주체연호에 대한 생각

조선중앙통신
42 **김정일**총비서는 충효의 화신
42 위인이 받으신 최상의 표창
43 **김정일**총비서 칭송,태양회
44 당과 수령을 따르는 마음에 기초한 일심단결
45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46 조선로동당력사에 영원히 빛을 뿌릴 불멸의 로작
47 수령결사옹위는 실천의 구호
49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 가는 행복한 인민
50 태양의 력사는 끝없이 흐른다

사설
51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빛난다

정론
58 영원히 빛나라 주체의 태양이여

회고
64 그리움과 경모의 7년

불멸의 역사
66 영생

노래
72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시
74 우리의 4월 15일
75 오늘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청년주체주의자대오
76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며

나는 지름길은 민중생존권 투쟁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투쟁의 동력을 반미자주화운동으로 승화 · 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의 중심에는 주한미군 철퇴운동을 배치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역량은 주한미군을 철퇴하기 위한 대중적 정치투쟁을 조직하고 영도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사상적 예속, 미국의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을 반대 · 배격하여 친미예속체제 전반을 완전히 청산하는 총체적인 대중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미국은 조미 정치협상이 진전되는 데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군사고문단을 배치하여 군사적 지배의 고삐를 계속 틀어쥐고 있으려 할 것이며, 주한미군이 철수된다고 해도 미국에 대한 사상적 예속, 미국의 정치적 지배, 경제적 수탈, 문화적 침탈은 철군과 함께 저절로 청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은 정치 · 경제적 분야에서의 투쟁, 사상 · 문화적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반미노동조합운동, 반미농민회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반미청년학생운동, 반미여성운동, 반미문예운동이 생겨나면서 반미자주화운동의 거센 기운이 남(한국) 전역에 넘쳐나야 한다.

(2).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국가보안법체제를 타파하고 친미예속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추세에 따라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된다고 해서 남(한국)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저절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만일 민족민주전선역량이 남(한국)의 정세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친미예속세력은 여전히 집권하면서 친미예속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친미예속세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미예속체제가 자동적으로 해체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다. 친미예속세력은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는 과정이 시작되면 자신을 유지 · 보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친미예속세력이 계속 집권하면서 국가체제를 장악 · 관리하고 있는 한, 정권기관과 사회 전반에 뿌리 박혀 있는 친미예속체제는 쉽사리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친미예속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세력을 제압하는 투쟁에서 정치적 타격을 집중해야 할 지점은 국가보안법체제다. 그 체제는 친미예속세력이 의존하고 있는 존립근거이므로 그 근거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면 그 위에 성립되어 있는 체제는 무너지게 마련이다. 국가보안법체제를 타격하는 것은 우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세력을 제거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투쟁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민족민주전선이 주한미군 철퇴투쟁을 중시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부차적인 투쟁과업으로 생각하고 경시해서는 안 된다.

반제전선에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세력에 대한 투쟁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장하려면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 곧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의 조직역량을 중심축으로 전선을 재배치하고 전선역량을 일층 강화해야 한다. 친미예속체제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은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에 의해서 가해지게 된다.

(3).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정치조직의 최고 형태인 정당을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 정당 건설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 방법론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는 정당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주도≫라는 개념에 유의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역량이 그대로 정당으로 대체 ·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이 주도하면서 다른 역량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적 성격의 당을 건설해야 한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세 가지다.

ㄱ. 민족민주전선은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의 조직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 학생, 여성, 지식인의 조직역량이 총결집된 위력적인 정치세력으로 강화 · 장성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대중의 조직역량이 전선역량의 중심에 확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이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에 의해서 강화 · 장성되어야 통일전선적 성격의 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당 건설 이후에도 당의 모든 사업을 민족민주전선의 요구에 맞게 영도할 수 있다.

ㄴ.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정당 건설에 함께 해야 할 동반세력은 개혁세력이다. 지금 남(한국)의 현실을 보면, 친미예속세력과 개혁세력이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친미예속세력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가 하면 개혁세력이 친미예속의 늪지에서 허덕이고 있다. 집권상층부의 개혁세력은 고정불변의 친미예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조대상이 될 수 없다. 조미 정치협상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고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으로 강화 · 장성된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이 상승되면, 집권상층부의 개혁세력은 그들의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 때문에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적 타격을 받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소자산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중간층 개혁세력은 지금은 비록 친미예속성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세발전의 요구에 따라 개조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간층 개혁세력은 소자산계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층 민중의 계급적 요구에 부응할 능력이 없으며, 남(한국) 사회가 양극화되는 데 따라 차츰 분해되고 있는 소자산계급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중간층 개혁세력들 가운데서 끝내 친미예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력은 반미자주화운동의 타격을 받고 몰락하게 될 것이며, 반미자주화운동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조된 개혁세력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개혁세력에게서 친미예속성을 벗겨내고 개조하여 정당건설의 동반세력으로 포용해야 한다.

ㄷ. 통일전선적 성격의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전선과 개조된 개혁세력이 결집하되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게 될 정당이며, 앞으로 정세발전에 따라 차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예비하는 정당으로 발전될 것이다.

(끝)

하나 민족도 하나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 (3)

주체사상 총서 5권

조국통일방침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조국통일의 5대방침이다.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5대방침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집≫28권, p.398)

조국통일 5대방침은 미제의 부추김 밑에 ≪두개 조선≫조작음모를 각방으로 추진시켜오던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의 분열을 영구화할 데 대한 ≪정책≫을 공공연히 세상에 선포하는 데까지 이른 조건에서 제시되었다.

김일성동지는 역사적인 1973년 6월 23일 연설에서 미제의 노골화되는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분쇄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의 지름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구국대책으로서 조국통일 5대방침을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여 왔다.

조국통일 5대방침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 것이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가시는 것은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상호 이해와 신임을 두터이 하며 민족적 대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긴절하고도 관건적인 문제이다.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며 남조선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북반부에까지 확장하려는 미제의 전쟁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호전분자들의 매국배족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는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되어 있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조선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으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근본장애로 되고 있다.

북남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불신임과 오해를 낳는 근원인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어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으며 북남간의 관계도 개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라의 통일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려면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전쟁정책이 저지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군사적 대치상태가 해소되어야 한다.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없애는 것은 동족상쟁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 염원에 완전히 일치할 뿐 아니라 긴장상태의 완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해외로부터 무기와 군사물자를 들여오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내일 계속됩니다)